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2호 【루계 제26216호】 주체107(2018)년 12월 8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자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드높이 힘차게 전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기계공업성 룡전기계공업관리국과 룡강화강석광산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드높이 계속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룡전기계공업관리국에서

지난 11월말까지 년간 지표별계획을 완수한 기계공업성 룡전기계공업관리국아래 각지 공장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 일군들은 각지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현장들에 전투과지를 정한 관리국일군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는 한편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적앙양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을 박력있게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쟁을 심화시키고 설비와 자재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맡은 임무를 다할 불같은 열정을 안고 명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리였다. 이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줄기찬 투쟁을 벌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 1돐을 맞으며 뜨락또르생산목표를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충성호뜨락또르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과감히 극복하면서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충성-122》호뜨락또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회천정밀기계공장과 강서기관부속품공장, 평양측정계기공장, 함흥차바퀴공장, 평양영예군인려과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협동품생산에서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지금 룡전기계공업관리국아래 각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더 높은 목표밑에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룡강화강석광산에서

룡강화강석광산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11월 30일현재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전진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원석채취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원석생산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돌제품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군들의 치밀한 생산조직과 지휘,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의해 성과는 확대되고있다.

선행공정을 맡은 원석1, 2작업반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원석1작업반에서는 룡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자행식원석절단기의 가동률을 높여 원석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원석2작업반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자행식원석절단기를 새로 받아들일수 있는 수천㎥의 채광장을 마련함으로써 원석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혁신의 불길은 가공작업반에서도 타오르고있다.

가공작업반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술관리를 잘하여 판간을 비롯한 각종 다듬돌을 더 많이 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고있다.

간화강석생산을 맡은 중절작업반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중절기의 PLC조종체계화립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로력을 절약하면서 생산성을 훨씬 끌어올리였다.

공무작업반과 건설작업반, 운수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로동자들도 각종 기계수리와 설비보수, 물동운반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돌제품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준

다음해농사차비 적극 추진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황해남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유기질비료생산을 비롯한 농사차비를 알심있게 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황해남도의 기본과업은 농사를 잘하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긴 도의 일군들은 다음해농사차비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협동벌마다에 방송선전차, 포전방송기재, 전투속보 등이 기동성있게 전개되고 대중을 농사차비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다음해농사차비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안악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차비에서 본때를 보이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안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그날계획은 그날로 수행하기 위하여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오국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장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절사관철할 각오를 안고 유기질비료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대추, 엄곶협동농장을 비롯한 명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계획된 논밭갈이를 해제낀 기세로 농사차비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제명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삼지강협동농장을 비롯한 명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장에 찾아오시여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그리며 농사차비전투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달리고있다.

연안군에서 다음해농사차비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다.

군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불길가시기, 유기질비료생산을 비롯한 농사차비에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신천군, 청단군, 태탄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다음해농사차비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5일현재 공장에서는 4명의 로동자들이 3년분계획을, 10여명의 로동자들이 2년분계획을 수행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종업원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을 널리 소개하면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참모부에서는 조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돌제품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군들의 치밀한 생산조직과 지휘,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의해 성과는 확대되고있다.

선행공정을 맡은 원석1, 2작업반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원석1작업반에서는 룡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자행식원석절단기의 가동률을 높여 원석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원석2작업반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자행식원석절단기를 새로 받아들일수 있는 수천㎥의 채광장을 마련함으로써 원석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혁신의 불길은 가공작업반에서도 타오르고있다.

가공작업반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술관리를 잘하여 판간을 비롯한 각종 다듬돌을 더 많이 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고있다.

간화강석생산을 맡은 중절작업반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중절기의 PLC조종체계화립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로력을 절약하면서 생산성을 훨씬 끌어올리였다.

공무작업반과 건설작업반, 운수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로동자들도 각종 기계수리와 설비보수, 물동운반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돌제품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준

수백건의 기술혁신안 창안도입

자강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자강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현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서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 단위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뜻깊은 올해에 수백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을 받아들인 기세로 계속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의 명수,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각급 당조직에서는 3대혁명소조사업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각급 당조직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위원발전소, 회천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도중소발전관리국아래 중소형발전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전력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현실에 도입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투쟁하고있다.

회천발전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청천강에 계단식으로 건설된 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을 높이고 시간당 전력생산을 더 늘일수 있는 2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인데 이어 발전설비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정보통신국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현실에 받아들인데 이어 계속 창조적지혜를 합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만포8월2일세멘트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자들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전천탄광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종자로 찾아쥐고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키고있다.

조사기의 기료품을 우리 식으로 해결한 회천제사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9월방직공장과 강계편직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로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생산을 훨씬 늘이면서도 많은 로력을 절약할수 있는 새로운 기계설비를 창안제작한데 이어 방직실과 천, 편직물의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기술혁신목표수행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장자산종합식료공장, 강계목재가공공장, 강계로도술공장, 회천시 류중농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장, 기업소와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거둔 성과를 제때에 평가해주고 일반화하면서 그들이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릉철광자화배소, 자력선별공정건설 마감단계

재령광산에서

재령광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릉철광자화배소, 자력선별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전극, 합금철, 내화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광산에서는 로체적이 수십㎥나 되는 자화배소로와 대형송풍기, 마광기, 어려대의 자력선별기 등 중요설비들에 대한 설치공사를 끝내고 시험생산을 진행하고있다.

매장량이 많은 릉철광으로부터 품위가 높은 자철정광을 생산할수 있는 이 공정이 확립되면 주체철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

주체98(2009)년 3월 재령광산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산에서 쇠돌을 많이 생산하여야 전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재령광산의 로동계급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금속공업성 일군들은 주체철생산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릉철광자화배소, 자력선별공정을 확립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공사를 결속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광산당조직에서는 수명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광산참모부에서는 방대한 량의 공사를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해당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자화배소온도와 원료배합비 등 중요기술지표들을 확정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과학기술의 보검을 틀어쥐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으로 광산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방대한 량의 설비제작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하였다. 특히 중요설비인 배소로의 요솔구와 송풍기날개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로운영을 정상화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중기계수리중대의 전투원들은 물전기재들의 가동률을 훨씬 높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이면서 자화배소로와 마광기, 자력선별기 등 중요설비조립을 집적으로 진행하였다.

국가과학원 흑색광업연구소의 연구사들은 광산의 기술집단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설비제작과 조립, 시험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해 한결같이 분발해나선 재령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창조투쟁에 의해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전혁철

탄광들에 보내줄 동발나무생산에 큰 힘을

량강도림업관리국에서

량강도림업관리국에서 탄광들에 보내줄 동발나무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은 물끓는 산판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면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연암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올해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한 열의에 넘쳐 동발나무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체벌장조건에 맞게 통쏘이길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고있다. 한편 뜨락또르운전수들은 경사가 급한 산지도로의 특성에 맞게 운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통나무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작업소들에서는 림철길을 체벌장가까이에 접근시키고 림철기관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고있다.

림철기관사들은 불리한 운행조건을 극복할수 있는 기술적대책을 세우면서 많은 통나무를 실어나르고있다.

백암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매일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작업소들에서는 합리적인 나무베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으로 살며 투쟁함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도림업관리국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동발나무생산성과가 계속 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각 도샘물공장건설 활발

각 도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샘물공장이 일떠서고있다.

지방공업성 해당 부서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에서 샘물공장건설을 제일먼저 끝내고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또한 황해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에서도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샘물을 더 많이 공급해주려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각 도일군들은 샘물원천을 찾아내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갔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로 시대앞에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심장에 간직한 강원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부족한것이 많고 어려운 속에서도 샘물공장건설공사를 제기있게 밀고나갔다. 이들은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생산건물을 일떠세우고 설비를 자체로 제작하여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평안북도, 함경남도일군들은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빠른 속도로 밀고나갔다.

평안북도지방공업관리국 일군들은 해당 과학연구단위와 협력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공정설계를 진행한데 이어 설비제작전투를 내밀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샘물생산설비제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구성공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설비들을 손색없이 제작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결과 구성청룡산샘물공장에서는 얼마전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함경남도에서도 내부예비를 최대로 동원하여 설비제작과 설치를 끝내고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조업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자강도의 샘물공장에서도 설비시운전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샘물생산의 위생학적요구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도록 공정설계를 하고 설비제작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어려운 조건에서도 샘물생산에 필요한 설비제작과제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남도일군들도 도안의 력량을 발동하여 건물을 일떠세우고 설비설치를 다그치고있다.

황해북도, 황해남도, 남포시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샘물공장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수지경판나무모온실 새로 건설

문덕군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문덕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수지경판나무모온실을 건설하였다. 결과 년간 생산주기 2회전으로 수십만그루의 튼튼한 나무모를 생산하여 산림복구전투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수지경판나무모온실은 통합생산체계에 의해 나무모의 생육에 알맞는 온도와 습도, 빛세기 등 환경 및 영양조절을 실시간으로 장악하고 그에 맞게 진행하도록 과학화되여있다. 또한 관리공 한명이 수십만그루의 나무모를 작은 면적에서 쉽게 자래울수 있게 공업화, 집약화된 로력절약형온실이다. 그리고 종전에 비해 나무모생산키일을 훨씬 단축하면서도 실수률을 높일수 있으며 제철에 관계없이 튼튼하게 자래워 질을 보장하고 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현대적인 온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자면 현대적인 온실이 있어야 합니다.》

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시, 군들에서 본보기로 되는 현대적인 온실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의도대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풀어나갔다.

우선 나무모생산공정에 대한 조종체계를 국가과학원과의 련계밑에 훌륭히 확립하였다. 동시에 설비조립과 자동화된 해가림발설치를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도 앞선 단위 기술자들의 방조속에 풀어나갔다. 또한 이들은 자연흐름식관수체계도입에서 걸린 문제의 하나였던 1만여㎥의 비닐판도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자체로 해결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합성수지배인은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첨임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온실건설에로 불러일으켰다. 이에 고무된 종업원들은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온실을 일떠세우기 위해 힘과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온실이 훌륭히 일떠선 결과 지금 여기서는 산림복구전투승리를 담보해줄 나무모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글 및 사진 오은별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의 위대한 생활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건설부문일군대강습

탁월한 령도로 안아오신 건설의 대번영기

지금으로부터 5년전 12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진행되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느라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서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를 받아안고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전체 대강습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비범한 예지로 주체건축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주시고 특출한 령도력으로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시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걸출한 창조의 태양, 건축의 위대한 영재를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온 나라가 크나큰 격정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건축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주체건축의 새로운 본보기들을 마련하시고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강국의 면모에 맞는 기념비적창조물들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도록 하신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중요생산시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무릇 건축은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문화적재부라고도 한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면모를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건축에는 해당 시대의 모습이 비끼게 된다. 그래서 한 나라의 력사는 건축물의 발전사라고도 하는것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대표하는 조선의 건축은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조직적수완, 무비의 실천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크나큰 로고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따라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여온 우리 조국의 발전높이를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핵입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정은시대 주체건축의 본질과 특징, 목표와 방향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이 땅에서 건설의 대번영기가 어떻게 펼쳐졌고 무엇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다.

그 밑바탕에 초석으로 놓여있는것이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인민사랑이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우리 인민들이 쓰고살 건축물들은 먼 후날에도 손색없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의 표본이 될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해당 부문의 한 일군이 문수물놀이장의 건설과정에 대해 들려준 이런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날 완공을 앞둔 문수물놀이장의 실내물놀이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마식령전역과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세계적인 창조물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던 시기였다.

이날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며 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여기에 해카림대를 설치해주어야 하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여기에는 자연채광이 비쳐드는것만큼 필요한 곳에 해카림대를 설치해주어 인민들이 리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뜨릿한 충격에 휩싸였다. 말자체로 실내물놀이장인것으로 하여 이곳에 해카림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해본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물놀이장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깊이 마음쓰시며 그 누구도 관심하지 못한 자그마한 세부에 대하여서까지도 대번에 헤아리고 일깨워주시는것이였다.

이곳의 리발실과 미용실에 들려보면 설비들과 비품들을 세계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듯싶고 물놀이장의 로대에 서면 당과 국가일군들이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게 하여 그들이 인민을 위해 바로 이런것을 해야 한다는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던 가슴뜨거운 사연을 새겨안을수 있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해주신 형성안이 113건이나 되고 공식보도된 현지지도소식도 여러차례나 된다는것을 생각할 때 온 나라의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을 찾고찾으시며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우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을 무엇으로 헤아릴수 있단 말인가.

문수물놀이장뿐이 아닌 미림승마구락부며 은하과학자거리, 옥류아동병원 등 이 땅에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에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새겨져있다.

철두철미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계적인 수준에서 창조된 바로 여기에 인민적인 건축으로서의 주체건축의 참모습이 있다.

일찌기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는 철의 정의를 내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몇해전 양력설날 그이께서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하신 사실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날로 발전하는 주체적건축예술의 극치, 상징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인 과학기술전당,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다기능화된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 주체적건축예술의 본보기인 과학기술전당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귀중한 선물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이런 세계적인 건축물에서 령도자의 따뜻한 보살피심을 받으며 마음껏 공부하고 과학의 나래를 펴는 행운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나라에서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숭고한 뜻은 그이께서 현지지도하신 평양중등학원에도 어리여있다.

각 도에 원아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멋있이궁전들로 일떠세워주신데 이어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원어버이의 다심한 정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을 시원하게 정말 잘했다고, 평양중등학원건설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원아들의 밝고 창창한 글읽는 소리,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렸다고 하시며 평양시민들이 내놓고 자랑할만 한 큰일을 또 하나 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교사, 야외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을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잘 건설하였다고, 학원의 모든 요소요소를 원아들의 정신도덕적, 육체적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간, 그들을 교육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장소로 만들어놓았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은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 류경김치공장, 보진산소공장 등에도 깃들어있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모든것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에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집대성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는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조화롭게 이룬 멋있이건축물들에도 비껴있고 모든 요소요소가 대상별특성과 용도에 맞게 손색없이 꾸려진 훌륭한 보금자리들에도 새겨져있다.

인민의 웃음소리 한껏 넘쳐나는 려명거리에 새겨진 이야기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룡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시고 조선혁명의 려명은 해솟는 룡남산에서 밝아온다는 뜻에서 거리이름을 **《려명거리》**라고 부르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새로 일떠서는 거리가 철두철미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인민의 거리로 되게 하여주시려 수십차에 걸쳐 무려 1 390여건의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때로는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서, 때로는 하늘의 뜻별도 조으는 깊은 밤에도 려명거리형성안의 점과 선을 그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로고를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줄수 있겠는가 하고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정은 그이께서 오르시였던 70층짜리 살림집과 그 높이를 가늠해보신 부엌의 찬장, 아늑한 서재의 산뜻한 그림과 살림집기단층에 뿌리내린 꽃과 나무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이 높은 뜻이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건설장이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꽃펴나고있는것인가.

우리 조국은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속에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훌륭히 구현된 희한한 건축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재는 물론 특지조성과 불장식 지어 간판과 마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극적인 발전이 이룩되여 건설의 최전성기를 빛내이였다.

건축물의 내외부형성에 종자가 일관하게 관통되도록 하며 개개의 건축물이 다 자기 특색과 고유한 미를 갖추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상한 건축학적실력앞에 누구나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제는 건축예술창조에서 목표와 기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창조수법에서도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지향하는 야심만만한 창조열풍이 몰아치고있다.

이 모든것은 종합예술로서의 건축의 위력을 다시금 새롭게 느끼게 한다. 그것은 건축예술의 천재, 창조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단번에 펼치실수 있는 장엄하고도 거창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건축으로 한생을 보낸 유럽나라의 한 교수가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나서 읊은 즉흥시가 새로운 의미로 되새겨진다.

…

서방에서 뜨던 해
동방의 조선에서 뜨고
서방에서 바라보던 문명이
동방의 조선에서 빛나거니
지난날 서방에서
동방을 내려다보았던 나
오늘은 동방에서
서방을 내려다보노라
…

아, 내 조선에 반했노라
조선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수에게 반했노라

진정 주체건축의 최전성기를 대표하는 하나하나의 건축물은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만복을 누리게 할 크나큰 로부와 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만능의 창조력, 무한대한 열정과 열렬한 인민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모시고 주체건축의 최전성기를 펼쳐온 벅찬 나날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그이 이시야말로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창조의 거장, 걸출한 위인이심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펼치는 주체건축의 본보기, 표준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더욱 눈부시게 펼쳐질 조국의 래일이 우리앞에 있다.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절사관철의 기수들, 혼연일체의 대부대가 있기에 주체건축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위대한 창조의 태양,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은 자기의 모든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우며 이 땅우에 반드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몸소 명예총장이 되시여

이 땅우에 눈부신 창조와 건설로 세기적변혁을 이룩해가는 위대한 력사가 끝없이 흐르고있다.

오늘의 가슴벅찬 현실을 대할수록 하나의 못 잊을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으시여 대학이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데서 책임적인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손길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재능있는 설계가, 건축가들을 부르고있습니다.》

지금도 승엄히 안겨온다.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으시여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이 대학사업을 중시하여오신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오늘은 자신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여 대학사업을 적극 밀어주려고 한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잊지 못할 그날 대학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교육부문의 어느 단위를 돌아볼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다가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돌아보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대학에 나왔다고, 그것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름할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한몫할수 있는 유능한 건축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주체적건축인재양성의 거점이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이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얼마나 중시하시며 그이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심장으로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대학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받아안으며 대학일군들과 교원들은 사회의 발전면모와 현대의 모든 지성, 창조적사색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건축의 세계가 얼마나 심오하며 그 첨단에 올라서자면 어떤 높은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더욱 잘 알게 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병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자면 대학의 교육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건축인재양성에서 믿거름이 되려고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의 가슴은 또 얼마나 후덕게 달아올랐던가.

지금 전국각지에서 전도유망한 건축가들을 기다리고있다고, 학생들에게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도가 달려있고 이 학생들의 손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국의 설계도가 그려지게 된다고,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설계도를 자기들이 그려야 한다는 자각과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와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그리도 간곡히 당부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총정으로 받들어나가는 평양건축종합대학과 같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가 있기에 창조와 건설로 더더욱 부강해질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림 정 호

불멸의 자욱우에 새겨진 감동깊은 화폭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뜻깊은 올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깊은 화폭들을 남기시였다.

고결한 충정을 지니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10월 10일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극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건축형식과 내용이 고상하고 부드러우며 활활하고 웅장하면서도 현대적미감과 고전미가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설계도 독특하게 잘했고 시공도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고보니 장군님 생각이 간절하다고, 인민들에게 최상의 음향조건을 갖춘 예술극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교사, 야외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을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잘 건설하였다고, 학원의 모든 요소요소를 원아들의 정신도덕적, 육체적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간, 그들을 교육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장소로 만들어놓았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은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 류경김치공장, 보진산소공장 등에도 깃들어있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모든것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에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가 집대성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는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조화롭게 이룬 멋있이건축물들에도 비껴있고 모든 요소요소가 대상별특성과 용도에 맞게 손색없이 꾸려진 훌륭한 보금자리들에도 새겨져있다.

인민의 웃음소리 한껏 넘쳐나는 려명거리에 새겨진 이야기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룡남산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시고 조선혁명의 려명은 해솟는 룡남산에서 밝아온다는 뜻에서 거리이름을 **《려명거리》**라고 부르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새로 일떠서는 거리가 철두철미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인민의 거리로 되게 하여주시려 수십차에 걸쳐 무려 1 390여건의 형성안을 보아주시고 때로는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서, 때로는 하늘의 뜻별도 조으는 깊은 밤에도 려명거리형성안의 점과 선을 그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로고를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줄수 있겠는가 하고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정은 그이께서 오르시였던 70층짜리 살림집과 그 높이를 가늠해보신 부엌의 찬장, 아늑한 서재의 산뜻한 그림과 살림집기단층에 뿌리내린 꽃과 나무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이 높은 뜻이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건설장이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꽃펴나고있는것인가.

우리 조국은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속에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훌륭히 구현된 희한한 건축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재는 물론 특지조성과 불장식 지어 간판과 마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극적인 발전이 이룩되여 건설의 최전성기를 빛내이였다.

건축물의 내외부형성에 종자가 일관하게 관통되도록 하며 개개의 건축물이 다 자기 특색과 고유한 미를 갖추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상한 건축학적실력앞에 누구나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제는 건축예술창조에서 목표와 기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창조수법에서도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지향하는 야심만만한 창조열풍이 몰아치고있다.

이 모든것은 종합예술로서의 건축의 위력을 다시금 새롭게 느끼게 한다. 그것은 건축예술의 천재, 창조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단번에 펼치실수 있는 장엄하고도 거창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건축으로 한생을 보낸 유럽나라의 한 교수가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나서 읊은 즉흥시가 새로운 의미로 되새겨진다.

…

서방에서 뜨던 해
동방의 조선에서 뜨고
서방에서 바라보던 문명이
동방의 조선에서 빛나거니
지난날 서방에서
동방을 내려다보았던 나
오늘은 동방에서
서방을 내려다보노라
…

아, 내 조선에 반했노라
조선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수에게 반했노라

진정 주체건축의 최전성기를 대표하는 하나하나의 건축물은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만복을 누리게 할 크나큰 로부와 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만능의 창조력, 무한대한 열정과 열렬한 인민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모시고 주체건축의 최전성기를 펼쳐온 벅찬 나날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그이 이시야말로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창조의 거장, 걸출한 위인이심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펼치는 주체건축의 본보기, 표준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더욱 눈부시게 펼쳐질 조국의 래일이 우리앞에 있다.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절사관철의 기수들, 혼연일체의 대부대가 있기에 주체건축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위대한 창조의 태양,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은 자기의 모든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우며 이 땅우에 반드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지난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관광지구건설총계획도앞에서 건설총계획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이 마련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온천관광지구가 료양소구획과 관광유양소구획으로 나누어 건설되는데 맞게 세계 여러 나라 온천봉사시설들의 자료를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기술과제서작성부터 잘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적지 않은 대상건설을 진행하고있는데 현재 조건이 특별히 좋고 수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설계를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하고 봉사사업을 잘하면 인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문명한 생활을 모든 요소가 독특하고 정교하며 아름답게 시공된 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한가지 해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어났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못 잊을 그날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일떠섰다는것을 알면 우리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기쁨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진정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오 영 심

영웅조선의 건설본때, 창조본때를 남김없이 과시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신 5돐에 즈음하여

건설신화를 련이어 창조하며 비약하는 내 조국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진행된 때로부터 5년이 흘러갔다. 이 기간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진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나날이였다.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나갈 불타는 열의밑에 대건설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 군인건설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건설신화, 영웅신화들을 창조함으로써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성스러운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청년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

멀고 험한 건설장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겨안은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은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리였다.

이들은 지난 10년동안에 한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낌으로써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적을 창조하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리하여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로 일떠세우고 발전소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이들은 짧은 기간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로 훌륭히 완공하고 전해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

건설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자랑찬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퍼지였다. 우리의 건설자들은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미래과학자거리,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와 청년운동사적관, 과학기술전당을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70일전투의 나날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이전의 거리들보다 비할바없이 큰 려명거리건설이 선포되고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전체 건설자들은 려명거리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완공하고야말 불타는 일념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이들은 부지면적이 90여정보이고 연건축면적이 172만 8 000여㎡에 달하는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특히 70층살림집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골조공사를 단 74일만에, 축구경기장을 몇개 합친것보다 더 큰 면적의 외벽타일붙이기를 불과 13일동안에 끝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건설자들은 북부피해복구전투까지 하면서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에 비해 두배가 훨씬 넘는 새 거리,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사회주의선경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기적중의 기적, 려명신화를 창조하였다.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전체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고 위대한 당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와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군인건설자들은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건설신화를 련이어 창조하였다.

우리 혁명의 고향군,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군을 하루빨리 살기 좋은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시킬 불타는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216사단의 돌격대원들과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은 17만㎡에 달하는 방대한 토량을 짧은 기간에 처리한데 이어 20여일동안에 새 살림집 및 공공건물구획을 조성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이곳 건설자들은 불꽃튀는 창조투쟁을 벌려 올해 7월말까지 삼지연군 읍지구 65개 호동의 살림집과 22개의 공공건물, 4개의 산업건물골조공사를 결속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쉬임없는 삼복철의 장정을 이어가시며 불과 40일사이에 두차례나 공사현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전체 건설자들은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신화적인 기적의 력사를 련이어 써나갔다.

그리하여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읍지구에 새로 일떠세우는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공사가 대부분 완공단계에 들어섬으로써 삼지연군은 우리 당이 바라는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게 되였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동해의 명승지에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마음한뜻으로 총궐기해나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의 전체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맹렬한 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지대정리와 토반성토, 하부망공사를 끝내고 건축물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치였다.

뜻깊은 당창건 74돐을 맞으며 인민의 해양공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곳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명사십리전역에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그날은 더 빨리 앞당겨지고있다.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와 남바다를 횡단하는 해상철길다리가 일떠서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서 또다시 새로운 건설기적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려명신화가 창조되던 시기는 먼 옛일처럼 되였다.

대건설전투의 불길속에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새로운 시대어가 태여난 우리 조국은 지금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여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날로 발전하는 건축설계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

건축설계부문에서 불변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하여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의 편의부터 먼저 생각하고 문화정서적인 환경과 조건,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며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 비끼도록 하는것이 바로 주체건축의 중요한 원칙이다.

과학기술전당 하나만 놓고 보아도 우리 당이 내세운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잘 알수 있다.

독특한 건축형식, 가장 리상적인 학습조건, 특별히 꾸려진 어린이품판과 장애자열람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한것이고 후대들을 위한것이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 편의를 최우선시하는 이 사랑의 원칙이 구현된 건축물이 우리 조국땅 방방곡곡에 그 얼마나 많이 일떠서고있는가.

집 하나를 짜고 선 하나를 그어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후대들을 먼저 위하는 기풍이 건축설계부문에 고유한 본태로 자리잡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건설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운 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우리의 건축설계는 사회주의내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앞당기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새롭게, 다양하고 특색있게

지난 5년간 우리의 설계가, 건축가들은 설계를 다양한 형식으로 특색있게,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게 현대적으로 하기 위하여 랑구의 낮과 밤을 이어왔다.

건축물들을 대상별특성과 용도, 수용능력에 맞게 건설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특색있는 설계를 내놓기 위하여 천만자루 붐을 아끼지 않는것이 건축설계부문에서 하나의 기풍으로 되였다. 이와 함께 특색건물, 령예네르기, 령탄소건물 등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일층 강화되여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려명거리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아담한 다층건축군과 웅장화려한 초고층건축군의 완벽한 조화,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기절약기술들과 지붕 및 벽면록화기술 등 최신건축기술의 도입, 이것은 건축의 실용성과 조형화, 예술화측면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거리, 에네르기절약형거리, 특색형거리로서의 면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축설계가 도달한 높은 경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날로 강화되는 설계력량

건설의 대번영기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긍지높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성과는 건축설계의 과학화수준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한것이다.

설계부문에서는 건물정보모형화를 비롯한 첨단수준의 설계응용프로그람과 체계를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며 건축설계방법을 과학화하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설계수단들과 설비들이 중앙과 지방의 건설설계기관들에 갖추어짐으로써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도 마음먹은대로 설계할수 있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이 우리 나라 설계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고 설계단위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전국의 건축가, 설계가들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리며 가꾸는 미술가, 원예사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자질향상을 위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갔다.

진정 당과 인민의 요구라면 그 어떤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도 최단기간내에 가장 정확히 과학적으로 설계할수 있게 발전해가는 우리의 미더운 설계력량이 있기에 당의 주체건축사상이 옹호고수되고 사회주의문명개화기가 더욱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호성

우리의 건재로 우리의 건축물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본보기건축물,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여기에는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나날이 발전하는 주체적인 건재공업의 자랑찬 모습이 비끼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으로는 모든 마감건재를 우리 나라에서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억만금을 들여 꾸려주시고 우리 원수님 새 거리의 이름을 지으시면서도 제일먼저 불러보신 금지의 건재생산기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업마진 우리는 대성산기슭에 훌륭하게 꾸려진 중앙동물원을 찾았다.

산중의 호랑이와 마주선것과 같은감을 주는 본관과 고개를 높이 쳐들고 당장이라도 걸음을 뗄듯 한 거부기를 형상한 파충관, 한창 재주를 부리던 곰등이가 그대로 굳어진듯싶은 수족관…

하나하나의 건물이 다 독특한 자태를 뽐내고있는 중앙동물원은 웃음바다, 사람바다였다.

그 웃음속에 묻히여 걸음을 옮기던 우리의 귀전에 문득 이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래일은 룡라곱등어관에 가는게 어떻소?》, 《금강산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부터 갑시다.》…

저마끔 수도의 곳곳에 자리잡은 문화정서기지들과 금양봉사기지들을 찾으며 웃고 떠드는 그들은 지방에서 평양견학을 온 사람들이였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없이 일떠선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우리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흘러들고 창조물마다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귀전에 울려오는듯싶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해마다 높은 생산성과로 조국땅 방방곡곡에 창조의 숨결을 더해주고있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절사의 각오로 이들은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와 부가물을 자기 고장에서 찾아냈고 하나의 공장을 일떠세우는것과 맞먹는 1호계렬생산공정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건하여 소성로의 동음을 높이 울렸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같은 굴지의 건재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있어 조국의 모습이 날로 변모되고있는것이 어언가.

천리마타일공장을 비롯한 마감건재생산단위들이 주체가 확고히 선 자랑할만 한 공장,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변모되여 그 생활력이 과시되고있다.

지난해 진행된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건재품 및 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된 각종 건재품이 전시되여 만사람의 관심을 모았다.

건축물의 미학적요구에 맞는 여러가지 문양의 장식타일과 그림타일, 수십가지의 색타일, 경제적효과성이 큰 블로크들과 쇠그물울타리, 수지관 등 많은 건재품은 그 모양과 형태가 다양한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였다. 이 자랑찬 창조물들이 주체화의 기치높이 튼튼히 꾸려진 우리의 건재생산기지들에서 만든 제품, 자력갱생의 산물이라는것이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려명거리,

수많은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과 40여동의 공공건물을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일떠세울수 있은것도 우리의 믿음직한 건재생산기지들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각 도에 꾸려진 건재생산단위들이 자체의 지방원료, 원천에 기초한 생산토대를 갖추고 도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하기에 우리 원수님 훌륭히 번모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면서 자신께서 제일 만족한것중의 하나가 바로 당의 국산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개건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도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한것이라고 평가해주시였다.

그렇다.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우리의 건재공업은 현대적인 생산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의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 수 필 ▷

인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정녕 우리 당의 손길아래 조국의 방방곡곡에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안겨주는 건축물이 최근 몇해동안에 그 얼마나 많이 일떠섰던가.

선히 어려온다.

어머니당의 따뜻한 품속에서 부모없는 설움과 로년의 고독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어라》, 《세월이야 가보라지》를 목청껏 부르며 복받은 삶을 노래하는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의 어린이들과 학생들, 늙은이들,

새집들이기쁨으로 밤을 지새우며 웃음꽃을 피우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주인들의 행복넘친 모습, 현대적으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에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들…

참으로 조국의 명당자리마다에 일떠선 창조물들을 생각할수록 온 나라에 울려퍼지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사회제도를 평가하고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민들의 웃음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신다.

지난 10월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에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찾으시여 수도의 한복판에 멋스러운 건물이 또 하나 들어앉아 웅치를 돋군다고, 여기를 지날 때마다 낡고 오래된 이 건물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이렇게 꾸려놓으니 마음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극장에 와보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를.

세상을 돌려보면 《물질적번영》과 《고도성장》을 목이 터지게 제창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모든것이 극소수특권계층의것이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의것은 아니기에 쩌고 병든 사회를 절규하는 분노의 함성이 그칠 날이 없다.

그러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이 자랑찬 현실로 꽃펴나는 내 나라에서는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이다. 하기에 새로운 건설신화들의 창조와 더불어 인민을 위한 건축물이 이르는 곳마다에 수없이 일떠서고있으며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김국철

도처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또 하나의 자랑이 늘었다.

전자공학부가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것이다.

대학창립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전자공학부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통해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문제가 단위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해당 단위 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조직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전자공학부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오늘과 같은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된 비결을 알자면 초급당위원회가 무엇을 무기로 틀어쥐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내밀었는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초급당위원장이 새로 임명되여왔을 당시 학부의 실태는 시원치 못했다.

대학적인 분담식학습경연에서 학부가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사실과 일부 교원들속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애착이 없어하는 사실, 일부 연구사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박사원을 졸업한지 오래되였지만 학위론문을 완성하지 못하고있는 사실들이 그 대표적실례였다. 바로 이런 편향들을 극복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보다 큰걸음을 내짚자면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야 하였다.

사실 학부는 몇해전에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에서 편향들이 나타나고있는것은 학부당조직이 도식과 틀에 매달려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진행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게 하지면 교직원, 학생들이 대중운동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초급당일군은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여 초급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학부사업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사상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학부적인 모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때마다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속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이며 자기자신을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켜 누구나 이 운동에 주인답게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또한 근로단체조직들이 모든 대중운동을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실현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대학에 깃들어있는 집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학부에서는 사무실들과 강당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제판과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단위의 면모를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이 시작되던 시기 일부 사람들은 다른 단위에서 재능있는 기능공들을 데려오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학부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힘과 재능을 믿고 자체로 진행하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 과정을 통해 교직원들이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대중운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학부에서는 빠른 기간에 교직원자체의 힘으로 대학적인 본보기가 될수 있게 위대성교양장소들을 훌륭히 꾸리고 청사의 복도와 강당, 사무실들에 집세위인들의 명제판, 당의 기본구호들 정중히 모시였으며 5대교양에 이바지할 교양판들도 의의있게 게시하였다.

교직원, 학생들이 혁명적수령관과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혁명신념과 투철한 계급의식을 간직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대중운동을 벌려나간 결과 그들을 오직 우리 당밖에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게 되였다. 또한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학습기풍을 세워 전국적인 대학생속독경연과 대학생상식경연, 로보트축구경기를 비롯한 경연들에서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학생과학연구소조활동을 힘있게 벌려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학급과 발명가학급 등이 태여나게 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학부의 교원들을 승급한 애국의 마음과 불같은 헌신성,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로 준비시킨것이다.

실험실들을 정보화하며 설비들을 현대화하는 문제가 입정에 올랐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이 없이는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광룡학부장은 반도체공학강좌 교원들과 마주앉았다.

그는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찾아보자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나라의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우는 사업은 결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 순결한 량심을 아낌없이 바쳐야 할 애국사업이다.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된대로 자체의 힘으로 정보화, 현대화를 다그쳐나가자고 하면서 그는 교원들의 심장을 두드리였다.

그의 절절한 호소는 반도체공학강좌 교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였다.

반도체공학강좌 교원들은 결의목표에 반영된 내용들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두팔을 걷어붙이고 실험실을 정보화하기 위한 전투에 떨쳐나섰다. 어려운 때도 많았다.

그때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학부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후대교육사업을 혁명의 전도,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대학의 교육자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나가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도록 잘 이끌었다.

부학부장들과 학부의 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이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섰다.

초급당일군은 응용전자공학과 5학년교실을 다기능화된 본보기교실로 훌륭히 꾸리는 사업을 당적분공으로 스스로 맡아안고 여름방학기간에 학생들의 책상수십개를 학습과 복습활동에 편리하게 구비해주어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지체없이 학습에 들어갈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부터 결의목표수행을 자신들의 사업으로 여기고 일장에서 걸린 문제를 해결해나가니 교직원들도 저저마다 대중운동에 떨쳐나섰다. 이렇게 되여 실험실들의 정보화, 설비의 현대화수준은 날을 따라 높아졌으며 모든 교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학부의 교육과학사업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서영국강좌장을 비롯한 응용전자공학강좌의 교원들은 학생들을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새 교육방법을 내놓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수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생체전자공학강좌, 전공전자공학강좌를 비롯한 학부의 교원들은 외국어실력과 실천실기능력 등을 높여 수십종의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훌륭히 집필하고 수백건의 소론문을 작성, 발표하여 나라의 교육과학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였다.

태양전지연구실, 응용전자공학연구실, 전자수감장치연구실, 빛전자공학연구실, 생체전자공학연구실의 연구사들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PLC프로그람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고 전공중학장치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라선식뇌CT설비와 눈전기생리검사기를 완성한 생체전자공학연구실 연구집단에는 2.16과학기술상이 수여되고 이 연구실에서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가 배출되였다. 또한 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궐기기간 자체의 힘으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면서 석탄, 전력, 기계공업, 보건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훌륭히 풀어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도입증과 과학기술성과등록증, 특허증서, 발명증서 등을 수여받았다.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초급당위원회는 학부의 교직원, 학생들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뭉쳐진 하나의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를 위해 학부의 모든 일군들이 오래동안 교육사업을 진행해온 로교수들과 마음속고충을 안고있는 교원, 연구사들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도록 잘 이끌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한 과학자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 초급당일군이 누구보다 속을 태우며 애를 써서 끝내 그의 마음속고충을 풀어준 사실이며 학부사업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는 속에서도 건강이 좋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귀한 보약재를 안고 학부일군들이 병원으로, 그들의 집으로 뛰어다니던 이야기 등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이 교직원, 학생들을 높이 세운 결의목표수행에로 떠밀어준 밑거름으로 되였다.

누구나 주인된 자각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과정에 학부는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각급 당조직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 때 단위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지름길을 확신성있게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투철한 관점, 헌신적인 일본새

곽산군 천태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곽산군 천태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업을 설계하며 작전하고 실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4월이였다.

농산제4작업반에 나갔던 초급당위원장은 초급일군들과 함께 농업근로자들의 집들을 돌아보았다.

초급당일군의 마음은 무거웠다. 전날에 내린 비가 새여 불편을 느끼고있는 세대들이 있었다.

초급일군들은 그 원인이 기와가 부족한데 있다고 말했다.

(농장에 기와생산기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였는가?)

초급당일군은 즉시 그 실태를 료해하였다. 농장에서는 해마다 기와를 생산하고있었다. 하지만 그 량이 적은데 비해 원가가 많이 들어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있었다.

초급당일군은 자신의 사업을 돌이켜보았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한다고는 하였지만 실지로 대중이 겪는 생활상고충을 제때에 들여다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였다.

그날 저녁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초급당일군은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풀어주지 못하고있는 원인이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이 투철하지 못한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애로를 모르는 일군은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리익과 편의를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일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렇게 되여 기와생산기지를 개건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기와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밤낮으로 전투를 벌렸다. 일군들이 결심하고 달라붙은 결과 생산능력이 훨씬 확장된 기와생산기지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섰다. 이렇게 기와문제가 풀리게 되였다.

근직으로 축산을 잘하는 단위로 소문이 난데도 농업근로자들을 위하는 이곳 일군들의 헌신적인 사업기풍이 깃들어있다.

초급당위원장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농장의 축산토대는 빈약하였다. 한마디로 축산을 한다고 했지만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농장의 실정에 맞게 축산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 그 실현을 위해 투신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작업반마다 돼지우리가 새로 건설되였으며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지난시기에 비해 고기생산량을 2배이상 늘이였다.

성과는 이룸이 아니다. 1000㎡의 양어장을 새로 건설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해주고있다. 목욕탕과 진료소개건 등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일들을 찾아할수록 그들의 생활이 향상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말해준다.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색하고 실천하는것만큼 그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웃음소리는 나날이 높아진다는것을.

본사기자 김혁철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동지가 이란조선친선의원단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동지는 7일 의례방문하여온 알라에딘 보루제르디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조선친선의원단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이란조선친선의원단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 참관

알라에딘 보루제르디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조선친선의원단대표단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민족간부육성의 중심기지,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강화발전되여온 대학의 자랑찬 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혁명사적관과 전자도서관, 수영관을 돌아보았다.

또한 대표단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9일(일요일) 오전 빙상관에서 여러 체육단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오산력상체육경기대회 짧은주로속도빙상경기가 있게 된다.

다음주에 진행되게 되는 2018년-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부류축구련맹전과 2018년-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자 1부류축구련맹전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녀자 제비:갈매기
서산축구경기장에서
녀자 월미도:묘향산
봉화산:경공업성
내고향녀자축구선수단에서
녀자 내고향: 4.25
리명수체육단에서
녀자 리명수:평양
4.25체육단에서
녀자 소백수:압록강

15일

리명수체육단에서
남자 리명수:경공업성
4.25체육단에서
남자 4.25 :월미도
려명:선봉
내고향녀자축구선수단에서
녀자 내고향:묘향산
4.25체육단에서
녀자 4.25 :경공업성
서산축구경기장에서
녀자 월미도:갈매기

【조선중앙통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금성뜨락또르공장 주물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무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 금성뜨락또르공장 주물직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이 주목된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뜻깊은 올해 기술자, 기능공들이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을 위한 주물품생산에서 큰 몫을 맡아 해제끼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장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물직장에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을 위한 주물품생산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당에서 제시한 전투과제를 어떻게 하면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해내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직장의 일군들은 사색을 거듭하였다.

지난해와 대비해볼 때 생산조건은 불리하였다.

이때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반드시 해낼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준것은 바로 당조직이였다.

전투를 앞두고 진행된 일군들의 어느 한 협의회에서 초급당위원장은 말하였다.

《자력갱생의 비결도, 생산장성의 열쇠도 과학기술에 있다는것을 명심합시다. 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믿고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킨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후 초급당일군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직장의 현장에까지 찾아오시여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그들이 한시도 잊지 않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얼마든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초급당일군의 화선식정치사업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가슴마다에 불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전투에 들어갔다.

직장장, 책임기사는 물론 직장의 당 및 근로단체일군들은 누구나 틀끝는 전투장 한복판에 자기 위치를 정하였다.

어려운 고비가 많았다.

그때마다 일군들은 현장에서 기술자, 기능공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난관을 뚫고나갔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된 전세대 기술자, 기능공들의 투쟁위훈도 실감있게 이야기해주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왔다.

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공학강좌를 비롯한 학부의 교원들은 외국어실력과 실천실기능력 등을 높여 수십종의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훌륭히 집필하고 수백건의 소론문을 작성, 발표하여 나라의 교육과학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였다.

태양전지연구실, 응용전자공학연구실, 전자수감장치연구실, 빛전자공학연구실, 생체전자공학연구실의 연구사들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PLC프로그람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고 전공중학장치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라선식뇌CT설비와 눈전기생리검사기를 완성한 생체전자공학연구실 연구집단에는 2.16과학기술상이 수여되고 이 연구실에서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가 배출되였다. 또한 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궐기기간 자체의 힘으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면서 석탄, 전력, 기계공업, 보건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훌륭히 풀어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도입증과 과학기술성과등록증, 특허증서, 발명증서 등을 수여받았다.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초급당위원회는 학부의 교직원, 학생들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뭉쳐진 하나의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를 위해 학부의 모든 일군들이 오래동안 교육사업을 진행해온 로교수들과 마음속고충을 안고있는 교원, 연구사들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도록 잘 이끌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한 과학자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 초급당일군이 누구보다 속을 태우며 애를 써서 끝내 그의 마음속고충을 풀어준 사실이며 학부사업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는 속에서도 건강이 좋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귀한 보약재를 안고 학부일군들이 병원으로, 그들의 집으로 뛰어다니던 이야기 등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이 교직원, 학생들을 높이 세운 결의목표수행에로 떠밀어준 밑거름으로 되였다.

누구나 주인된 자각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과정에 학부는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각급 당조직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 때 단위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지름길을 확신성있게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진정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얼마전 강령군 하부포기술고급중학교를 찾았던 우리는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자기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 사업이 시작되던 때였다.

어느날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지배인이 교장을 찾아왔다.

학교가 기술고급중학교로 전환된다는것을 알고 왔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 학생들이 고급중학교시절부터 수산부문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사업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학교꾸리기사업에 필요한 자재들과 실험실습실들에 구비할 실험기구들을 해결해주는 문제가 토론되였다고, 우리 함께 어서 학교를 번듯하게 꾸려보자고 하는것이였다.

교장은 가슴이 뜨거워올라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수 없었다. 늘 우리 학교라 친근하게 부르며 학교일을 자기 일로 간주하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진정을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하지만 당시 사업소는 바다나물을 수확하기 위한 생산전투로 여느때보다 바쁠 때였다. 그런 속에서도 학교를 적극 도와나선것이다.

일군들은 사업소의 종업원들에게 열렬히 호소했다고 한다.

교육지원사업은 시간이 한가할 때나 무엇이 풍족할 때 하는 사업이 아니다.

오늘의 증산투쟁도 중요하지만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은 그에 비할바없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양식공이 되고 기술자가 되여 우리 바다를 지켜설것이다. 조국의 미래는 결코 먼 앞날이 아니다. …

이렇게 되여 사업소에서는 누구나가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나서게 되였다. 수십의 세멘트와 목재, 유리 등의 건설자재, 수십종에 수백점의 실험기구, 콤퓨터와 태양빛전지판 등의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을 가지고 찾아온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뜨거운 진정은 교육자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그후에도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언제나 학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한가지라도 도와주기 위해 애썼다.

운동회날이면 수많은 경기상품을 준비해가지고 찾아와 학생들의 경기를 보아주며 축하도 해주었고 합숙에서 생활하는 교원들을 위해 무식물, 땔감도 보장해주었다. 때 교원에게 포근한 이불도 마련해주었다. 뿐만아니라 롱구공, 축구공과 운동복, 신발, 학습장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체육기재와 학용품을 마련하여 안겨주기도 하였고 수십개의 창문을 새로 교체해주기도 하였다.

교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때없이 학교에 들려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도와나서군 한다는 사업소일군들의 모습, 당의 교육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듯싶었다.

마침 고급3학년 학생들의 실습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려고 사업소로 가는 교장과 동행한 우리는 지배인을 만날수 있었다.

학생들이 노를 젓는 방법이며 다시마모를 분산하는 방법 등을 잘 알수 있게 기능이 높은 양식공을 붙여주는 등 실습을 위한 여러가지 조직사업을 깐깐히 하는 그를 보니 역시 교육사업을 중시하는 일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잘하고있는데 대한 위대를 하러 왔다고 하자 그는 손을 내흔들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학교를 돕는 일이야 지원사업이라기보다 우리의 응당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이 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양식공으로부터 한개 단위의 일군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였다고,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지원사업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것이 너무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될 때 대의원증을 들어 찬성한 대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후대교육사업을 그처럼 중시하는 당의 뜻을 잘 받들자면 아직도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이 깊어졌다.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런 참된 애국자들이 있어 내 조국의 미래는 더욱 창창할것이라는 확신이 가슴속에 그득히 차올랐다.

김수정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력량을 집중

상농공업대학에서

상농공업대학에서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힘을 넣고있다.

상농광산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에서는 단계별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교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대학의 일군들은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교원들이 두뇌전, 실력전을 벌려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대학에서는 자료기지에 광물생산에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를 충분히 갖추어놓고 현실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면서 현장에 전개된 설비리용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적극 풀어나가고있다.

얼마전에도 김철웅, 리종식동무를 비롯한 기계공학강좌의 교원들은 고심어린 사색과 열정을 기울여 설비정상가동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품을 자체로 제작하여 광물생산에 기여하였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탐보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대학일군들과 교원들은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의 열정으로 교육사업과 과학연구활동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리상두

독자의 편지

생명이 경각에 달했던 평범한 농장원을 위해 불같은 정성을 기울여 끝내 소생의 기쁨을 안겨준 구장세멘트공장 종합진료소 의료일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전하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농장에서 작업도중 뜻하지 않게 의식을 잃은 제가 구급으로 그곳 종합진료소에 실려갔을 때는 지난 8월초였습니다. 당시 저의 생명지표는 령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저를 두고 가족들도 손목을 놓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주경철소장선생님을 비롯한 종합진료소의 의사선생님들은 병을 푸 고칠수 있다고, 신심을 잃지 말라고 고무해주며 소생전투를 벌렸다고 합니다.

24시간 교대가 따로 없는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과 노력에 의해 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게 되였습니다.

그후 의료일군들은 교대로 저의 침상을 지키면서 건강회복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였습니다.

아침이면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갖가지 영양음식을 안고 찾아와 힘과 용기를 주며 치료의 날과 날을 이어간 리영실, 리은희, 구현숙의사선생님들, 진정 의사이기 전에 친형제, 친부모가 되여 뜨거운 정을 쏟아붓는 그 모습앞에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렇게 10여일이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여가는 저를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던 의사선생님들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런 불같은 사랑과 정성을 지닌 의료일군들이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그렇듯 빛나는것이며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진다고 저는 소리높이 웨치고싶습니다.

구장군 운룡리 백인옥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절절한 그리움 안고 마련해가는 탐구의 열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는 장군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많은 자금을 배려하여 꾸려주신 최첨단연구기지입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겨울철집중어로전투가 한창인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혁명활동소식에 접한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격정은 류달리 컸다. 바로 그 수산사업소마다에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고저 이들이 스스로 연구도입한 소중한 창조물이 있었던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어려달통안 이 수산사업소들을 종횡무진하며 긴장한 도입전투를 벌리고 떠나온 후에도 언제든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찾아오시여 기쁨속에 보아주실 그날을 그려온 111호제작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이였다. 마음의 한끝은 정양과 수력리 떨어진 동해기슭의 잊을수 없는 로구들에 이어져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번 현지지도과정에 자기들의 소박한 창조물도 보아주시였다는 어느 한 수산사업소 일군의 이야기에 이들모두는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나 당중앙과 사상과 뜻도 발걸음도 슴결도 함께하기 위해 늘 사색하고 탐구하며 애쓰는 111호제작소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에서 일한다는 숭고한 자각이 굳게 간직되여있다.

올해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과학연구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는 과정에 111호제작소에서는 블루투스기능을 가진 무선체계집적회로, 수자식전원조종회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집적회로에 대한 설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전용소자를 만들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집적회로기술분야에서 첨단수준을 당당히 돌파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제작소의 과학자들은 지금도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중요연구과제수행에서 자기들이 피타게 쌓아온 높은 실력을 잘 발휘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에 나간 과학자들이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리성남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탄광일군, 탄부들과 지혜와 열정을 합치면서 10여개의 갱에 대한 유선 및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뽐프, 압축기를 비롯한 여러종에 수십대의 갱내주요설비들에 대한 원격감시조종체계를 실현하였으며 원격가상봉사기를 리용한 일생산재정공시체계, 탄광경영업무봉사체계, 입갱인원실시간장악체계화립, 전동기무접점가동장치개발 등 1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도입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금지의 석탄생산기지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제작소에서는 전력공업부문과 채육부문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첫걸음을 뗀 20대의 청춘연구집단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려는 제작소 일군들의 적극적인 조직정치사업에 따라 20대, 30대의 청년과학자들이 현장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입되고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곳 과학자들이 해놓은 일을 보실 때면 111호제작소에는 젊은 과학자들이 많다고, 그들이 일을 잘한다고 정을 담아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말씀은 오늘 틀림없는 현실속에서 제작소의 기둥감으로, 쟁쟁한 실천가, 실력가로 성장해가고있는 새 세대 과학자들의 가슴속에도 깊이 새겨져있다.

제작소에서는 첨단제품생산기지도 활발히 운영해나가고있다. 이들이 자체의 힘으로 꾸린 공기정화소독기조립기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가하신 공기정화소독기가 올해에만도 수십대나 제작되여 보건부문과 식료공업부문의 여러 단위에 도입되였다. 지능장치조립기지에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값높은 치하의 말씀을 받은 혁명사적물영구보존체계구축에 필요한 장치는 물론이고 염록소측정장치, 액면준위계를 비롯하여 현실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제작되고있다.

령도업적단위들이 모든 분야에서 기관차, 견인기가 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안고 살며 일해오는 나날에 올해에도 여러명이 박사, 부교수, 석사대렬에 들어섬으로써 이제는 제작소의 거의 모든 과학자가 학위학직소유자로 되였다.

제작소의 면모도 훨씬 개선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리여있는 장소들이 보다 정중하고 정갈하게 꾸려졌다. 활발히 운영되고있는 버섯생산기지는 물론이고 령도업적단위를 적극 내세워주고 도와주려는 국가과학원과 내각일군들의 관심과 방조속에 종업원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 제사니사가 아담하게 일떠섰다. 부족되는 전력을 자체로 보장할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였다.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것이 이 12월에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간직하는 철석의 신념이다.

본사기자 려명희

과학연구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간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서— 본사기자 김광림 찍음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그 품속에서 과학자영웅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에서 연구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한 때로부터 어느덧 4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에 나는 위대한 장군님을 두차례나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으며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로력영웅,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로 자라났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자로서 지닐수 있는 모든 명예를 지닌 나를 두고 성공한 과학자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버이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없었다면 정녕한 로동자의 아들로 태여난 내가 어떻게 온 나라가 다 아는 과학자로, 영웅으로 될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농업부문의 과학자도 아닌 내가 우렁이유기농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작할 때의 나이는 예순세살이였다.

성공을 기약할수 없는 초행길에서 연구사업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것은 우렁이유기농법시험포전에서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뵈옵고 뜻깊은 가르치심을 받은 때부터였다. 그때 우렁이유기농법의 우월성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시험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저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이때부터 나는 연구사업을 즐기차게 벌려 염주군뿐만아니라 전국각지의 농장마다에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를 그리도 귀중히 여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고 김일성상계관인의 값높은 영예도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교시를 언제나 마음속의 기둥으로, 삶의 목표로 삼고 투쟁해왔기에 나는 우렁이유기농법을 더욱 훌륭히 완성할수 있었다.

나는 유기농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데서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연구사 리의정

인민이 준 박사학위를 빛내여가리

내가 자강도의 어느 한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것은 그이의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100(2011)년 10월말이였다.

그날 내가 개발한 석탄연소첨가제와 그 력을 보고있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기쁘게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좋은것을 연구하였다고 하시며 이 동무에게 박사학위를 주어야 한다고, 박사학위는 내가 주는것이 아니라 실지 그 력을 보고있는 인민이 주는것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그 다음날 이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를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어제 이 동무가 위대한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리였다고, 장군님께서 이 동무에게 주는 박사학위는 자신께서가 아니라 실지 그 력을 보고있는 인민이 주는것이라고 하시였는데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하시며 동행한 일군들앞에 내세워주시였다.

나는 이렇게 박사가 되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나는 연구집단의 과학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석탄연소첨가제를 확대도입하기 위한 탐구의 길을 즐기차게 이어나갔다. 애로가 막아서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준것은 자그마한 연구성과를 두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이였다.

대학의 다른 연구집단들에서도 새끼바스레기의 고밀도양식기술, 농작물성장자극제, 라선형불고리식압축기 등 인민들에게 력을 주고 나라에 리익을 주는 가치있는 연구개발성과를 내놓았다.

지금 나는 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리과대학의 과학연구사업을 책임진 일군으로 일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로 받들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대학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당면하여 새 에네르기개발과 관련한 연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리과대학 부총장 박윤삼

언제나 영광의 그날에 살며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들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남새연구 및 생산기지로 전변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연구소를 가까이할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우리를 맞이한 과장 리명성동무는 지금 과학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남새종류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과학연구활동을 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올해에만도 새롭게 육종한 남새품종이 10여가지나 된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새로운 남새품종들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우리를 그는 어느 한 연구실로 안내하였다. 이들이 최근에 육종한 《붉은통양배추1》호, 《홍각무우1》호, 《일순무우》, 《절임무우4》호 등 여러 남새품종은 이름부터가 류달라 우리의 흥미를 무척 자아냈다.

처음 들어보는 남새이름들인지라 호기심어린 눈빛을 보내는 우리에게 그는 이 남새품종들은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해주시기 위해 몸소 연구소에 보내주신 품종들을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알맞게 육종한것이라고 말하였다.

매 품종의 영양학적특성과 식용가치에 대한 해설을 들을수록 인민들에게 더 좋은 남새를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어려왔다.

그 높은 뜻을 받들어 모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연구사업을 즐기차게 벌려 새로운 남새품종들을 키워이 육종해낸 이곳 과학자들이 정말 돋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은 육종2연구실의 시험포전에서도 벌어지고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재배시험에 열중하고있는 실장 마을민동무를 만나게 되였다.

이곳 과학자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맛좋고 영양가높은 얼떼남새작물들을 육종하는데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몇년전부터 시험포전에 도입하고있다는 접재배기술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이 기술을 리용하여 과학자들은 접재배구의 자욱을 새겨볼수 있었다.

올성다수확배추품종을 육종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한 생물공학연구집단의 성과도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주었다.

새로운 연구성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으로 받들고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온 이곳 연구소과학자들의 피타는 노력의 산물을 정녕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다양한 남새품종을 육종해내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들끓고있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 과학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이처럼 훌륭한 첨단연구기지를 일떠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한없는 사랑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우리는 이곳 연구소를 떠났다.

본사기자

실천적의의가 큰 창조물을 내놓기까지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

자기 직업,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은 무엇으로 발현되는가.

얼마전에 진행된 제29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장을 찾았던 우리는 국가품질감독위원회의 한 일군으로부터 하나의 검사검역편람이 개발되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 대답을 찾게 되였다.

검사검역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높여주고 검사검역원들이 다방면적인 분야의 지식을 소유할수 있게 하여주는 검사검역편람, 수년세월 이 편람개발에 순결한 량심을 바친 평안북도수출입품검사검역소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대적자각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상품들을 검사검역하던 오태준동무는 하나의 량정앞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갓 배치되여온 검사검역원이 상품들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알지 못하다나니 부피두터운 책을 한장한장 번져가면서 검사검역을 진행하고있었던것이였다.

어찌 보면 무심히 스쳐보낼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태준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어떻게 하면 검사검역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을가.)

낮에 밤을 이어 사색을 거듭하던 그는 판형콤퓨터에 눈길이 미치게 되였다.

(전자화된 검사검역편람을 개발하여 판형콤퓨터에 넣어 리용한다면…)

결심은 하였지만 그는 선뜻 뛰어들지 못하였다. 개발사업이 너무도 방대하였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잠시나마 나약했던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하며 그는 우리 식의 검사검역편람을 개발할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자료기지구축량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였다. 특정한 부문의 편람과는 달리 상품검사와 위생, 수의, 식물검역에 해당한 분야의 지식과 함께 다양한 사업지원기능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편람을 개발해야 하였다.

참고해야 할 책들만 해도 다 모아놓으니 사무실안을 꽉 채우다싶이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자료기지구축에 얼마나 많은 품이 들었는가를 알수 있었다.

해당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쉬운 길을 택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맡은 임무, 자기가 지켜선 혁명초소를 더 잘 지켜가려는 마음이 스스로 이 길을 택하게 한것이였다.

문자자동인식기능을 갖춘 체계를 개발하던 때였다.

일부 검사검역원들이 상품들에 씌여있는 외국어를 판형콤퓨터에 입력하는것을 매우 불편해하였다. 이것을 본 이들은 카메라에 의한 외국어문자자동인식기능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계속 실패로 이어졌다.

이 기능이 없다고 해서 핫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검사검역원들이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리용할수 있도록,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편람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과학기술전당의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마침내 정확도가 높은 문자자동인식기능을 갖춘 체계를 개발하게 되였다. 모든것을 세계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하며 우리 식으로 창조하던 나날에 이들은 방대한 량의 사전자료기지를 구축하였으며 차세번호인식기능, 각종 환산기능, 계산도구를 가진 체계를 개발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은 해당 전문단위들을 찾아다니며 구축된 검사방법과 자료들의 정확성을 확증해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실천적의의가 큰 검사검역편람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와 평안북도수출입품검사검역소의 일군들도 한마음한뜻이 되여 이들의 개발사업을 힘껏 도와주었다.

지금은 전국의 수많은 검사검역원들이 이 편람을 즐겨 리용하고있으며 검사검역사업의 과학성과 신속성도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오늘날 자기 직업,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은 이처럼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과학기술로 자기 단위 사업을 보다 전진시켜나가는것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이 단위에서처럼 어디서나 과학기술의 시대가 요구하는 어려운 일감을 스스로 찾아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실천해나간다면 온 나라에는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를것이다.

본사기자 박현

의학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의의깊은 계기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8》을 보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부문, 단위에서 기술적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보건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3대혁명전시관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된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8》을 보고 그에 대하여 깊이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보건부문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전국에 널리 일반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250여개의 단위가 참가하였다.

참관자들로 흥성이는 전시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보건성의 일군은 우리의 기술과 자원에 의거하여 새로 개발된 의약품과 그 중간체들, 의료기구, 진단 및 치료방법, 보건정보 등 3 000여건의 제안들과 제품들이 출품되였으며 여러개의 부류로 나뉘여 전시되였다고 설명해주었다.

참관자들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먼저 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품 등이 1 000여건이나 전시된 의료기구 및 설비전시대에로 향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출품한 의료설비들을 가리키며 일군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이번 전시회에는 여러 과학, 교육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참가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출품한 수십건의 전시품가운데서도 수술환자용마취기와 수술현미경 등은 림상실천에서 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설비들을 에워싼 사람들이 연구사의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전시대에는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에서 출품한 여러가지 성능의 공기정화소독기들도 있었다. 이곳 연구사의 말에 의하면 무진수술실용 공기정화소독체계를 도입한 설비들은 저온플라즈마반응탄, 고성능려과장치, 음이온발생단 등 종합적인 공기정화소독기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수술실의 무진, 무균화를 보장하는데서 실리적이라고 한다. 이 설비들은 치료예방단위들은 물론 의약품생산단위들에도 도입되여 온을 내고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 의료기구연구소에서 내놓은 12통로심전계를 비롯하여 의료기구 및 설비전시대에 전시되여있는 많은 과학기술성과제안과 제품들은 참관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의료기구연구소에서 만든 가정용생물공진진단치료기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개발자들과 참관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 치료기를 리용하여 오랜 질병을 치료하였다는 한 참관자에게 사용과정에 느낀 소감에 대해 물어보며 수첩에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적어가는 개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질좋은 의료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성실한 탐구자세를 엿볼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의료설비, 의약품을 연구하고 그 생산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실지 온을 낼수 있는 과학기술성과제안들이 많이 전시되여 참관자들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수십종의 필수의약품생산용중간체의 합성방법을 확립한 성과들이 전시된 의학연구원 합성제약연구소와 홍남제약공장전시대로 향하였다. 이 중간체들의 품질이 매우 높다는것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즐기찬 투쟁에 의하여 림상실천에 절실히 필요한 구급소생약들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다.

우리 식 생산공정에 의한 의약품생산용중간체들이 나오게 될 그날을 그려보며 다음전시대로 향하던 우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참관자들이 어깨성을 쌓고 주의깊게 설명을 듣고있는데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을 보니 거기에는 팔뚝같이 실한 약초들이 놓여있었다.

호기심이 부쩍 동하게 하는 이 전시대는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전시대였다. 성의 일군은 참관자들에게 조직배양방법으로 재배한 약초들이라고 하면서 이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한 천리마구역약초관리소에서는 지난 시기의 몇배에 달하는 약초를 생산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조직배양방법으로 약초를 재배하는 경우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전시대에는 새로 개발한 고려약들도 많았는데 하나하나의 전시품은 고려약을 엑스화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투쟁에 의하여 림상실천에 절실히 필요한 구급소생약들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다.

우리 식 생산공정에 의한 의약품생산용중간체들이 나오게 될 그날을 그려보며 다음전시대로 향하던 우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참관자들이 어깨성을 쌓고 주의깊게 설명을 듣고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을 보니 거기에는 팔뚝같이 실한 약초들이 놓여있었다.

호기심이 부쩍 동하게 하는 이 전시대는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전시대였다. 성의 일군은 참관자들에게 조직배양방법으로 재배한 약초들이라고 하면서 이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한 천리마구역약초관리소에서는 지난 시기의 몇배에 달하는 약초를 생산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조직배양방법으로 약초를 재배하는 경우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전시대에는 새로 개발한 고려약들도 많았는데 하나하나의 전시품은 고려약을 엑스화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전시회에 평양산원에서 출품한 전수는 다른 참가단위들에 비하여 특별히 많았다. 평양산원 새 기술심의실 실장 리성일동무는 우리 단위에서는 수자식보육기, 《메트로폴에 의한 자궁내막증의 기초 및 림상적연구》 등 310여건에 달하는 전시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산원에 휘몰아치는 과학기술열풍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누구나 20대, 30대에 학위소유자가 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다고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받들고 보건부문의 정보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떨쳐나선 편판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새 기술개발열의 또한 간단치 않았다.

우리는 보건일군들과 의학대학 학생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다는 푸른하늘정보기술연구소 전시대도 돌아보았다.

여러 환자의 심전도를 동시에 측정할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감시할수 있는 병렬심전도감시체계는 구급환자가 수시로 제기되는 치료예방단위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또한 가상적인 해부학표본을 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기, 계통들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수 있는 해부학실습실은 가상현실기술을 도입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보건부문의 기술적자립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성과와 경험들을 보급일반화하기 위한 과학기술발표회도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참으로 이번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8》은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고 보건실천에 이바지하는 새 기술, 새 제품개발에 누구나 떨쳐나서도록 고무함으로써 나라의 의학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옥별
사진 김명

우리의 전진을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들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방의 언론들에서도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빠른 발전속도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들이 연방 터져나오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UPI통신은 조선은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자립적경제토대와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있다,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수 있도록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오늘날 조선의 경제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로뚬》은 《김정은령도자로부터 배우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방의 전문가들은 조선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고 평하고있다, 실지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기계공업은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CNC기계들을 자체로 생산하고있으며 불가능한것을 가능한것으로 전변시키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여러 나라 출판보도수단들도 자체의 힘으로 경제적부흥을 이룩하려는것이 조선지도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지금 조선의 현실을 놓고볼 때 모든 힘을 집중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결심은 매우 굳건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자력자강에 의거할것이다, 국산화와 과학기술발전을 우선시할것이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그렇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혁명전통이며 투쟁방식이다. 우리의 부강조국건설력사는 곧 자력갱생의 력사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민은 언제 한번 외부의 지원을 받아 경제건설을 하겠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다. 오직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원칙에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기적만을 창조하여왔다.

엄혹한 난관이 겹칠수록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였기에 단 한번의 탈선도 없이 승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이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수 있게 해주는 위력한 보검이다.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는것이 력사와 현실을 통하여 확증되였다.

우리 인민은 그처럼 힘겨웠던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건설사업,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사업을 하면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페허우에서 복구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을 가지고 완수하였다. 자력자강으로 사회주의공업화를 불과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실현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던 시기에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세계를 놀래우는 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왔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후승리를 향하여 매진하고있다.

자기의 힘을 굳게 믿고 온갖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며 과감히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은 우리 인민을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게 하고있다. 그것은 그대로 눈부신 기적을 낳게 하고있다.

평양에 펼쳐진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현대적인 거리들과 나라의 도처에 일떠선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 우리의 비행기, 지하전동차, 새형의 트락또르와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등 모든 창조물은 적대세력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우리 나라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용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간의 멈춤도 없이 줄기차게 달려왔다. 이 길에서 우리는 더욱 단련되고 강해졌다.

우리 국가의 전반적경제는 상승궤도에 확고히 들어섰다. 비록 우리의 전진도상에 엄연하게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고있지만 우리 인민은 당의 부름따라 산악같이 일떠서 신화적인 기적의 력사를 써나가고있다.

전국도처의 건설장들에서 천지개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져 거창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수많은 단위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앞을 다투어 탄생하고있다.

우리 조국의 위력, 우리 국가의 거대한 발전잠재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주체조선의 힘은 말그대로 무궁무진하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전진을 그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다.

자기의 힘을 믿고 떨쳐나선 우리 인민이 어떻게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가를 세계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리 학 남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축복받은 재간둥이들

주체81(1992)년 4월 어느날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단의 특기있는 배우들과 인상깊은 종목들을 일일이 짚어주시면서 총련예술인재들이 많다고, 조국에 있는 예술인들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곁에 있던 한덕수의장에게 오늘 공연을 보니 의장동지가 재간둥이들을 조국에 보내지 않고 다 그러안고있는것 같다고, 그러니 총련에 재간둥이들이 많은것 같다는 유쾌한 농담까지 하시였다. 총련예술인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손길을 떠나 총련의 재간둥이들을 결코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10년후인 주체91(2002)년 2월말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아주실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연전반내용이 좋고 형식도 생동하다고, 매 작품의 사상성이 강하고 다 특성이 있다고, 민족적색채가 선명하고 동화되지 않는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기상을 잘 보여주었다고 거듭거듭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동안 총련에서 재일동포들의 생활감정과 취미에 맞는 주체적이고 애국적인 예술내용과 형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한것이 확연하게 알린다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정녕 그이의 높은 평가에는 바람세찬 이국땅에서 수령의 노래, 조국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총련예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는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의 사려깊은 마음이 어려있었다.

사랑의 특별렬차

주체82(1993)년 12월초 어느날 재일동포학생들의 조국방문청형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원산으로 갈 때 무엇을 타고가는가고 물으시였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사나와지면서 도로들이 얼어붙어 미끄러워진것과 관련한 물음이였다. 예정대로 배스를 태워보내려 하는데 대책을 잘 세웠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눈송이같은 눈송이가 쉼없이 쏟아져내리는 창밖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다가 아무래도 특별렬차를 따로 내오도록 해야 하겠다고, 철길구간에 불리한 개소가 없도록 철저히 알아보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자기들이 타고가는 렬차에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뒤늦게야 알게 된 동포학생들은 격정으로 목메이며 목청껏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사랑의 특별렬차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해안도시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였다. 하지만 동포학생들의 마음은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리고있었다.

앞당겨진 대회

언제인가 조국에서 교육일군들의 대회가 열리게 되였을 때 있은 일이다. 당시 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교육일군대표단이 대회가 열리기 전에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안타까이 물으시였다.

이역에서 수고하는 총련의 교육일군들이 조국에 왔다가 대회를 며칠 앞두고 떠나게 된다니 지금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의 대회에 그들을 참가시켜야 하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일군들의 가슴은 바질바질 타들어갔다. 대표단의 조국체류기일을 연장하는것이 어려운 문제였기때문이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문기일을 연장하는것이 어려우면 대회날자를 앞당기자고, 우리가 좀 수고를 하더라도 총련교육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여 수령님의 가르치심도 직접 받게 하고 조국의 교육일군들의 우수한 경험도 듣게 하여주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대회는 예정보다 앞당겨 열리게 되였고 남몰래 속태우던 총련의 교육일군들은 뜻깊은 행운을 누리게 되였다.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역의 전사, 제자들만이 누릴수 있는 특전중의 특전이였다.

본사기자

날강도의 파렴치한 《독도령유권》타령

최근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이 얼마나 파렴치한것인가를 보여주는 력사지도들이 공개되여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왕실의 력사학자가 1927년과 1931년에 만든 《일본력사지도》와 《신편일본력사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땅으로 표기되여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력사재단 독도연구소의 한 위원은 독도가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되였다는 일본당국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의 허황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올해초 로씨야의 한 아시아지리전문가가 내놓은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라는 도서는 1943년부터 1951년사이에 이전 쏘련과 미국, 영국등이 맺은 조약과 협정들에 독도가 조선의 떼낼수 없는 한부분으로 되여있다는것을 까밝히고있다.

지난해에는 울릉도옆에 독도가 그려진 대동여지도필사본이 일본에서 발견되였다.

또한 19세기 후반기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령토로 간주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는 일본검정교과서도 공개되였다. 1886년에 편찬된 이 교과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지지도 않았다.

1870년대부터 1890년대사이에 일본의 각이한 기관들에서 제작된 《대일본전도》, 《일본제국전도》 등의 지도들 역시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것을 일본도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사실들은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이 그야말로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 날강도적인 령토강탈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불법점거》를 운운하며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조선통일지지운동 제36차 전국집회

일본에서 진행

조선통일지지운동 제36차 전국집회가 11월 24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히모리 후미히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과 후가이도, 나가노, 후꾸시마, 군마, 교또 등 각지의 련대성단체 대표들과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서충언 국제통일국 국장과 재일동포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기따가와 히로가즈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사무국 차장의 기조보고에 이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무대에로》라는 주제로 토론들이 있었다.

또한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활동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이란대통령 미국의 제재책동에 경고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4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에 경고하였다.

그는 미국이 원유수출과 무역관계를 차단하여 이란을 고립시켜보려고 책동하고있지만 실패를 면치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만일 미국이 이란의 원유수출을 전면차단하려고 시도한다면 한방울의 원유도 페르샤만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리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압제적이며 독재적인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만을 거두어온 이란인민은 미국의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우엘리 마우레르 스위스대통령으로 선거

스위스에서 우엘리 마우레르가 새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5일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의 폭압만행 규탄

팔레스티나고등교육성이 5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폭압만행을 규탄하였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헤브론시에서 개교를 앞둔 팔레스티나인학교를 허물어버리고 그 부근지역을 폐쇄된 군사지대로 만들어버린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팔레스티나의 교육제도를 반대하는 극악한 테로범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팔레스티나의 교육사업을 방해하는 이스라엘의 책동을 지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미국주도 련합군 수리아군진지들을 공습

미국주도의 련합군이 2일 수리아의 홈스도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다.

사나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이날 저녁 련합군전투기들이 도의 동부교외에 있는 수리아군진지들에 미싸일사격을 가하였다.

외신들은 이번 공습이 반테로투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는 수리아군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하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범죄반대투쟁

마로끄경찰이 5일 엘 지디다시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려 10t의 카나비스를 압수하고 3명의 밀수업자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의 동남부국경지역에서 약 200kg의 카나비스가 몰수되고 4명의 관련범죄자가 억류되였다.

앞서 4일 케냐아경찰이 딜리피지역에서 50kg의 상아를 밀매하려고 시도하던 범죄자를 단속하였다.

최근 메히꼬의 낀따나로오주에 있는 한 비행장에서는 약 1.4t의 코카인이 압수되였다.

* *

잠비아의 해당 기관이 3일 남부지역에서 알콜밀수행위를 일삼던 범죄집단을 적발하고 밀수품을 실은 3대의 자동차를 몰수하였다.

이에 앞서 2일 알제리군대는 남부국경지역에서 범죄집단의 소굴을 들이쳐 많은 무기와 탄약, 마약을 몰수하였다.

미군전투기추락 사고에 항의

일본 오끼나와현의회가 최근 미군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항의하는 결의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결의와 의견서는 사고현장주변에 많은 고기배들이 집결되여있은데 대해 지적하고 추락사고로 대참사를 일으킬번 하였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결의와 의견서는 안전관리체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훈련을 계속하고있는 미군의 태도를 절대로 용인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심각한 대기오염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의 싸라예보시에서 최근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3일 이 나라의 기상수문연구소가 밝힌데 의하면 시에서 대기중의 미세먼지농도가 기준수치의 4~5배로 높아졌다.

특히 도시상공이 짙은 먼지로 뒤덮여 비행기운행이 취소되였다.

테로와 폭력에 의한 민간인피해

이라크에서 테로와 폭력으로 11월에 민간인 40여명이 목숨을 잃고 73명이 부상을 입었다.

2일 이라크주재 유엔대표부는 수도 바그다드에서만도 23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났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언론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11월 30일 《민생과 복지의 장애물인 자유한국당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자유한국당》이 민생현안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무분별하게 가로막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시설사용료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아동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비인간적인 목거를 저질렀다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사설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그들이 얼마나 민생에 무관심하며 악폐비호와 정략실현에만 몰두하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자유한국당》이 리명박근혜《정권》을 만들어 막대한 《정부》예산을 빼돌리고 각종 부정부패세력과 결탁하여 세금을 탕진하여왔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도 선거때만 되면 복지공약을 랑발하며 민중을 현혹하는데 골몰하고있다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유한국당》의 해체는 민생과 복지를 위해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그들이 《국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기만과 술수로 민생정책을 가로막는 한 이 땅의 복지는 실현될수 없다.

민중은 《자유한국당》의 거짓선전에 더이상 속지 않을것이다.

민중은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고 민중복지를 실현할것이다.

《보안법》폐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11월 28일 부산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이미 폐지되였어야 할 《보안법》이 조작후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끈질기게 유지되며 사람들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고 밝혔다.

그들은 친일파가 친미파로 둔갑하여 재벌, 고위관료로 되게 하도록 적극 뒤받침해온것이 바로 이 악법이라고 질규하였다.

사회에 많은 악법이 존재하지만 가장 먼저 《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반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보안법》폐지투쟁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1월 30일 사설을 통해 일본전범기업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신일본제철기업에 이어 미쯔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신일본제철기업에 이어 미쯔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이 이번에도 《국제법위반》을 운운하며 받아들일수 없다는 립장을 취하고있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사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밝혔듯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본은 스스로 과거사를 성실히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의 갈피에서

《기하학의 주추돌》을 발견하기까지

인류문명발전에 기여한 과학자, 발명가들속에는 직3각형에 숨어있는 미묘한 기하학적관계를 발전하고 그에 대한 정리를 내놓은 피타고라스도 있다.

직3각형에서 빗변의 두제곱은 두 직각변의 두제곱의 합과 같다는 정리는 그의 이름과 더불어 기하학과 기타 여러 학문에서 널리 응용되고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100마리소정리》라고도 부른다. 그것은 이 정리가 발전된 후 피타고라스학파가 100마리의 소를 잡아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력사기록에 기초한것이다.

피타고라스정리의 발견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다.

피타고라스의 제자는 이 정리에 기초하여 수학계에서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무리수를 발견하였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수학공식 10개》에 속하여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그 빛을 잃지 않고있다.

하다면 피타고라스는 이 정리를 어떻게 발견할수 있었는가.

지금으로부터 2500여년전 이딸리아남부의 어느 한 곳에서 연회가 열리였다.

바른4각형의 대리석타일을 깔아놓은 연회장은 궁전같이 호화로왔다. 그러나 손님들에게는 연회장의 황홀함도 한순간이였다. 연회탁에 음식이 빨리 오르지 않아 초대된 손님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깊은 사색에 잠겨 밤밑의 반짝거리는 타일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다. 피타고라스였다. 그의 주의를 끈것은 대리석타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매 타일의 조합과 수자간의 기묘한 관계였다. 피타고라스는 즉시 연필을 꺼내고 바닥에 앉아 타일의 대각선을 한번으로 하는 바른4각형을 그리였다. 그는 바른4각형의 면적이 타일 2개의 면적의 합과 일치하다는것을 발견하였다.

피타고라스의 사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연회가 진행되는 전기간 그의 눈길은 바닥에서 떠날줄 몰랐다.

계속하여 그는 두개의 타일을 합하여 만든 직4각형의 대각선으로 새로운 바른4각형을 만들면 이 바른4각형의 면적이 타일 5개의 면적과 일치하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피타고라스는 임의의 직3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두제곱은 다른 두변의 길이의 두제곱의 합과 같다는 대담한 가설을 내놓았다.

이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연회장에서 발견되였다. 이 정리는 오늘날 《기하학의 주추돌》로 불리우고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탐구의 길에서 성공의 열쇠는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사색을 중단하지 않는 진취적인 태도에 있다는 진리를 후세에 남겼다.

본사기자 박 예 경

로씨야에서 배척당하고있는 미국딸라

로씨야중앙은행이 금보유량을 늘이는 한편 미국의 국채를 방매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이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로씨야는 루블과 기타 화폐로 보다 많은 무역거래를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전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딸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로씨야의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의 대로씨야제재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은 일련의 사건들을 문제삼아 로씨야에 제재를 계속 가하고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재회수는 60여차에 달한다.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로 로씨야경제는 큰 압력을 받고있다. 그것은 로씨야의 원유나 천연가스 등 주요수출품들이 딸라로 거래되고있기때문이다.

국제금융통화체계에서 수십년동안 패권적지위에 있던 미국딸라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72년에 딸라대 금교환이 완전히 중지되였다. 금융무분에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1975년 오페크성원국들과의 협상끝에 딸라로만 원유거래를 진행한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결국 딸라와 원유는 밀착관계에 놓이게 되였으며 미국은 원유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다.

한 외신이 전한데 의하면 원유와 천연가스에 의한 수입은 로씨야국가예산수입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것은 로씨야의 경제발전이 미국딸라의 구속을 받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로씨야는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도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딸라배척계획을 발표하려 하고있다.

계획에는 무역거래에서 딸라대신 루블을 사용하는 회사들에 이중과세를 면제해주고 기타 장려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미 로씨야의 일부 기업들이 루블을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시험적으로 무역거래를 진행하고있다.

미국딸라배척으로 제재에 반격을 가하려는 로씨야의 움직임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있는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과학기술소식

새로운 동력을 리용하는 비행기구 개발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새로운 동력을 리용한 비행기구제작시험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동력이란 다름아닌 《이온바람》이다.

《이온바람》은 1920년대에 처음으로 확인된 물리적원리이다. 《이온바람》은 전류가 얇은 전극과 두꺼운 전극사이를 통과할 때 산생되는 바람 즉 이온들의 강렬한 흐름이다. 충분한 전압이 걸리면 전극사이의 공기는 소형비행기를 추진시킬만 한 힘을 산생시킬수 있다.

연구사들은 이번에 무게가 약 2.27kg이고 날개폭이 5m나 되는 큰 활공기를 만들었다.

활공기날개의 앞뜰을 따라 아래에 얇은 선들을 배렬해놓았는데 이 선들은 양극으로 리용된다. 이와 류사하게 날개뒤끝을 따라 음극의 역할을 수행할 두꺼운 선을 배렬해놓았다. 동체에는 많은 축전지와 이 축전지들의 출력을 높은 전압으로 전환하여 추진력을 얻어낼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여있다. 시험과정에 활공기는 60m나 안정적으로 비행하였다.

결국 새형의 비행기에서는 화석연료나 축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프로펠러나 추진기와 같은 부분품들이 필요없게 되였다.

연구집단의 한 성원은 《이번 연구성과는 소음이 적고 기계적으로 간단하며 연소가스를 방출시키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해주었다.》고 말하였다.

성과에 토대하여 연구사들은 가까운 앞날에 《이온바람》을 동력으로 하는 무인기를 개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전망목표는 이온추진체계와 전통적인 연소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연료절약형려객기를 만드는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사들은 보다 낮은 전압으로 더 센 《이온바람》을 산생시키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본사기자

ㄱ-1811946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